

◆ 미 수은, 2003회계연도 중 수출지원 가능규모 확대 예상

미 행정부는 2003회계연도(2002. 10. 1~2003. 9. 30)중 예상되는 미 기업들의 수출금융 수요를 감안하여 5억 4,200만 달러 규모의 미 수은 예산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.

동 규모는 2002회계연도 예산인 7억 2,700만 달러보다 26% 축소된 것이나, 미 수은의 2003회계연도중 자금지원 가능규모는 오히려 2002회계연도의 104억 달러보다 증가한 115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.

이는 미 정부(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)의 대외신용에 대한 예산비용(Budget Cost) 계산방식의 변경에 기인한다. 종래에는 예산비용 산정시 민간 부문의 평균이자율을 위험요소로 사용하

여 디폴트 리스크 외에도 신용공여기관 의수익, 기회비용, 세금부담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였으나, 개정된 방식하에서는 디폴트 리스크만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어 보조금 예산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미 수은의 실질 지원가능 규모는 증가하게 되었다.

새로운 예산비용 책정방식은 미 수은 뿐 아니라 OPIC, TDA 등 다른 대외신용기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, 앞으로는 보다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도 더욱 활발한 수출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【워싱턴주재원】